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사보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Vol. 719



***같은 해 같은 날**(1991년 5월 20일),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한 〈아침마당〉과 〈6시 내고향〉이 방송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30년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아침마당〉과 〈6시 내고향〉이 5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특집으로 방송된다.

30년 되돌아보며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 사랑에 보답

자칫 나른할 수 있는 아침 시간,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의 이야기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 온 〈아침마당〉은 '희망은 당신입니다'를 30주년 특집의 주제로 삼았다.

월요일과 금요일 방송은 기존의 스튜디오가 아닌 KBS홀에서 진행된다. KBS홀은 주로 대형 쇼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곳이어서 어떤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상암 문화비축기지, 은평 한옥마을과 경기도 가평 장수마을 등지에 마련한 야외 세트에서 시청자들과 만난다.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들과 희망을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사연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푸근하고 살가운 고향 소식으로 위안을 전해온 〈6시 내고향〉의 30주년 특집 방송 주제는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이다. '작은 경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6시 내고향〉 연중기획 의도를 살려 국악인 남상일, 가수 진성, 국악인 김용임 등이 '내고향 원정대'를 결성해 현장 일손 돕기와 농특산물 홍보로 힘을 보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응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사랑받는 비결은?

〈아침마당〉과 〈6시 내고향〉이 30년간 변함없이 사랑받으며,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두 프로그램의 안방마님으로 활약했던 이금희 전 아나운서는 〈아침마당〉과 〈6시 내고향〉의 초기 성공 요인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편성전략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침마당〉은 데일리 프로그램임에도 요일별 섹션 구분을 시도했고, 〈6시 내고향〉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장악했던 저녁 시간대에 파격적으로 지역 소식을 강화한 것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30년을 거치며 〈아침마당〉과 〈6시 내고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과 재미, 편안함을 선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던 진정성이야말로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수비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진행자들의 편안한 진행 솜씨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침마당〉, 〈6시 내고향〉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30주년을 맞는 두 장수 프로그램의 매력과 의미를 들어봤다.

▶ 〈아침마당〉 월~금 오전 8시 25분, 〈6시 내고향〉 월~금 저녁 6시 KBS1

INTERVIEW

Q 30주년 맞이하는 소감은?

아침마당 김재원 | 한국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아침마당〉 30년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길을 연 여러 선배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마당 이정민 | 방학이면 엄마 옆에서 함께 아침마당을 시청하던 여학생 시절부터 아나운서를 꿈꿔왔습니다. 동경해오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의 MC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인데, 30주년을 함께 맞이하게 되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당〉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가 된다는 출연자분들이 많으신데, 저 또한 효도하게 된 기분이기도 하구요.

6시 내고향 윤인구 | 〈아침마당〉을 5년 진행했었고, 〈6시 내고향〉은 3년 째 진행하고 있는데 25년 방송 경력 중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했네요. 회사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두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운서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이제 두 프로그램은 갓 서른의 청년이지만 저는 그새 장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지난 30년의 뿌듯함을 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또 30년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어깨에 힘 빼고 내게 주어진 생방송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시 내고향 가애란 | 할머니와 함께 매일 저녁 세상살이를 살펴보던 10살 어린이가 진행자로서 그 30주년을 함께한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 곁에 손녀로 언니로 딸로 〈6시 내고향〉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침마당 김재원 | 영화 〈달팽이의 별〉 주인공, 조영찬, 김순호 부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시각, 청각 중복 장애가 있는 남편을 세상으로 이끌어낸 척수 장애인 아내의 인생 이야기가 기억에 선명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오직 촉각만으로 생방송에서 인생을 풀어낸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당 이정민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인물은 도저히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네요. 〈아침마당〉은 "아침마당"이라는 네글자 아래 5개의 프로그램이 속해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월화수목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명불허전'에서 만났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해서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던 많은 외국인들과 〈아침마당〉에 합류하고 겨우 이틀째 되던 날 '화요 초대석'에서 뵈었던 정경화 선생님,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등을 가지고 있지만,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수백번 연습한 끝에 '도전 꿈의 무대'에 참여해 3승을 차지한 정성인 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모두가 문제아라고 지적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천재'라며 재능을 살려주셨던 방승호 교장 선생님, 유산슬, 비, 박진영, 김신영, 홍경민, 김정민 등 새벽부터 생방송에 나와 노래와 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시느라 애쓰신 연예인 분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6시 내고향 윤인구 | 매일 생방송이기 때문에 인이어(In-Ear)를 착용하고 방송합니다. 하루는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어느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꾹꾹 눌러쓰신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 상당히 미안해하며 얘기를 꺼내시는데 내용인즉슨 젊은 사람이 귀에 보청기를 끼고 방송하는 게 참 안쓰러워서 물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계신 보청기가 성능이 별로라 바꾸려던 참에 윤인구 귀에 당신 것이랑 비슷한 게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니 굉장히 좋은 것이겠거니 생각하시고 도대체 어디 보청기인지 물어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손주 같은 젊은 친구가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마음 아프셨을 터이며 한편으론 당신의 불편함을 덜고자 애써 편지를 써서 보내신 것임을 알기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답장은 해드리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 지금은 좋은 보청기를 끼시고 〈6시 내고향〉을 보고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6시 내고향 가애란 | 집에 여유가 있든 없든 자식을 먼저 더 챙겨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혹시나 자식에게 짐이 될까 당신 아프신 걸 꾹꾹 참기만 하는 어른들의 몸에 새겨진 세월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몸만 건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어른들을 보며 함께 행복했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아프시지만, 여전히 자식 생각이 먼저인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나 매번 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면에 계속 ▶]

[▶ 1면에 이어서]

Q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침마당 김재원 | 늘 밥을 먹듯이,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아침마당〉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결같이 저희 곁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이정민 | 지금까지 30년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주신 분들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십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 가까이서 30주년을 맞은 〈아침마당〉에서 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잘 보고 있다고 '티벗'으로 참여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볼 때나,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수만 표씩 전화투표가 오는 걸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어머! 이정민 아나운서! 〈아침마당〉에서 잘 보고 있어요~"라며 반갑게 두 손을 잡고 인사 건네주시는 어머님들 뵐 때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인가 싶어 겸허해지기도 하구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과분한 사랑 언제나 잊지 않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람 냄새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6시 내고향 윤인구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고향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농수산물의 판로가 끊기고 일손은 늘 부족하며 자식들마저 고향을 찾지 못합니다. 지난 1년, 〈6시 내고향〉에서는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많은 코너들을 개비해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전 제작진이 애써왔습니다. 그 뜻이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6시 내고향〉 시청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 담아, 또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해하는 그 마음이 〈6시 내고향〉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오늘도 생방송을 준비하는 게 미력이나마 진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6시 내고향 가애란 |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고 삭막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이웃이 있기에 살맛나는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웃들을 따뜻한 소식 최선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잠시라도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고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변함없이…

KBS 고품격 장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공영방송 KBS 존재가치 증명한 〈전국노래자랑〉

1980년 11월 9일~현재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빰빠빠빰빠빰빠~~♬"

매주 일요일 정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있다. 바로 서민들의 애환과 웃음이 함께 녹아있는 〈전국노래자랑〉이다.

〈전국노래자랑〉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마추어 출연자들에게는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1988년 5월부터 MC를 맡은 영원한 '국민 오빠' 송해 씨 역시 국내 최장수 MC이자 이 프로그램의 장수비결에 빼놓을 수 없는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전국노래자랑〉은 시청자가 주인인 공영방송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도 시청자가 원한다면 어디라도 찾아갈 것이다.

▶ 매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KBS1

40여 년 동안 시청자 물음에 답해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981년 10월 31일~현재



생활 정보 프로그램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건강, 음식 등 실생활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말끔히 해소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의 아이템은 연탄이었는데 당시에는 생활밀착형 소재들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관련 아이템을 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있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 KBS1



국내외 팬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선물해온 〈가요무대〉

1985년 11월 18일~현재

"방청객, 시청자, 해외동포, 근로자 여러분~."

월요일 밤 10시면 어김없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익숙하면서도 잔잔한 인사 멘트로 시작하는 〈가요무대〉는 '효와 향수'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대표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이다.

지상파 방송 월화 드라마들이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 월요일 밤 10시대에 편성돼 있지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시청률을 유지하며 독보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독일, 사할린 등 해외공연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향수를 달래주며,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가장 KBS다운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 매주 월요일 밤 10시 KBS1

집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보물찾기 〈TV쇼 진품명품〉

1995년 3월 5일~현재



〈TV쇼 진품명품〉은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모른 채 소장하고 있던 보물들을 발굴하고 전문 감정위원의 감정을 통해 우리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방송된 소장품 중 감정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은 2015년 5월 24일 1,000회에 방송된 '대동여지도 채색신유본'(김정호가 1861년 간행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로 전 세계에 3점만 남아있는 대동여지도 채색본)으로 최종 감정가는 25억 원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 기록을 뛰어넘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작품이 속속 등장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숨겨져 있던 고미술품의 세계로 떠나는 시간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KBS1



미래 세대와의 소통 창구…

‘KBS 1020 시청자위원’ 선발

KBS가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명의 ‘KBS 1020 시청자위원’을 선발했다. 1020 시청자위원들은 앞으로 KBS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은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KBS의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20 시청자위원… 젊고 활기찬 KBS 이미지 제고 기여

지난 14일 KBS 본사 아트홀에서는 1020 세대로 구성된 시청자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KBS가 미래 세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한 제1기 KBS 1020 시청자위원들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의 만 17세~25세 남성 6명, 여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은 “여러분의 참신한 감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밝고 생기 넘치는 KBS 콘텐츠로, 젊은층뿐만 아니라 전체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20 시청자위원들은 앞으로 매월 1회 편성·제작 책임자와 대화하고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출연 등 KBS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SNS 홍보 활동 등을 통해 KBS 인플루언서로 활약하며 KBS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KBS 1020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다.

I·N·T·E·R·V·I·E·W **강예훈** | 연세대학교 4학년, 23세

이번에 KBS 1020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된 다재다능한 이들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예훈 위원에게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다.



Q 제1기 ‘1020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된 소감은?

A 취업이라는 큰 벽을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꿈의 직장인 KBS에서 1020 시청자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미디어에 관한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평소 KBS에 대한 느낌은?

A ‘정감이 가는 방송사’입니다. 저는 1999년생으로 〈개그콘서트〉와 〈1박 2일〉을 보며 사춘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평일에는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TV 시청이 어려웠지만 주말, 특히 일요일은 〈해피선데이〉 시청 → 저녁 식사 → 〈개그콘서트〉 시청이었죠. 개콘의 엔딩 연주를 들어야 주말이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내적 고민들도 KBS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즐겁게 웃으며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KBS는 제 성장기를 함께 보낸 정감이 가는 방송사입니다!

Q ‘1020 시청자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A 저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를 위한 활동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그런만큼 MZ세대의 특성을 녹여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좋은 글과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 출연하면 저희 세대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과 미디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KBS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KBS 2FM, 라디오 청취율 2위로 도약

KBS 2FM(쿨FM, 89.1㎒)이 2021년 2차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점유청취율인 14.3%를 기록하며 전체 라디오 채널 순위 2위에 올랐다.

2FM은 지난 1차 조사와 비교해 조사대상 전체 20개 채널 중에서 가장 높은 2.1%p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경쟁채널인 CBS 음악FM, MBC FM4U, 그리고 MBC AM(표준FM)을 최초로 동시에 앞섰다. 특히 청취율 상위 ‘주중 TOP 20’ 프로그램에 〈조우종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쇼〉, 〈사랑하기 좋은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4개 프로그램이 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이같은 성과는 〈Day6의 키스 더 라디오〉 등의 신설을 통해 10대 청취층이 신규 유입되면서 경쟁력에 힘을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10대 점유청취율 전체 라디오 1위). 쿨FM 전용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지난달 4월 7일 100만 명을 돌파하며 라디오 청취층 확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리서치의 이번 라디오 점유청취율(MRS, Metro Radio Study)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평균 5분 이상 라디오를 청취한 13세~69세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I·N·T·E·R·V·I·E·W 사회공헌방송부 | **황형선 부장**

‘KBS 사회공헌방송부’를 아시나요?

KBS 3Radio KBS 한민족방송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라디오센터에는 ‘사회공헌방송부’가 신설됐다. 해외동포를 위한 ‘한민족방송’과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3라디오’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넘어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한 사회통합 공익채널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Q 사회공헌방송부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회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방송’과 ‘3라디오’는 원래 같은 부서였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방송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의 부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방송은 북한 동포들과 중국,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 있는 북방 동포들 더 넓게는 750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채널이고, 3라디오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열거한 단어들을 합쳐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사회공헌방송부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있는 ‘그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만든 벽을 허무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공헌방송의 공적 책무는?

A KBS는 수신료가 주 재원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무가 따릅니다. KBS에는 TV 외에도 많은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모든 채널들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꾸준히 만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 사회공헌방송부의 두 채널이 해야 할 공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한민족방송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민족체험수기 공모’는 북방 동포들이 큰 관심을 갖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많은 동포들의 ‘글’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성’으로 전하는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방법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라디오의 경우, 공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장애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적 기관들과의 협업을 시도하려 합니다. 특히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방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A ‘공감’이라는 화두가 요즘같이 모두가 개인화되는 사회에서처럼 크게 다가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라디오와 한민족방송은 장애인과 북한 동포가 ‘듣는’ 방송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관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방송을 만드는 사회공헌방송부 25명 PD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연재 기획 수신료현실화 Q&A ❼

글로벌 OTT가 대세인 시대에 왜 공영방송이어야 하나요?

■ 글로벌 OTT의 급부상

'넷플릭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전통 기업이 신생 스타트업에 의해 위협당하는 상황을 빗댄 말인데, 그만큼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부상이 매섭다는 뜻일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플랫폼인 유튜브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1/3이 넘는 20억 명 이상을 시청자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국민의 83%가 한 달에 평균 30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대한 콘텐츠를 앞세워 OTT시장에 뛰어든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상륙도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시청자는 안전한가?

물론 글로벌 OTT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에겐 콘텐츠를 선보이고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많아졌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익적인 정보와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하고 흥미와 자극을 앞세운 콘텐츠가 선택받는 소비행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뉴스와 정보가 넘쳐나고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더 늦기 전에 글로벌 OTT가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의 상업화에 맞서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재건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상업화가 극단화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글로벌 OTT를 비롯한 상업미디어에게 국가적 위기·재난상황에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보도, 약자를 배려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고민하는 사회적 의제 설정,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콘텐츠의 보급이 주된 목표나 책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자본의 논리에도 시장의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왜 공영방송이어야 하는가?

2020년 KBS는 시청자, 학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이 맡아야 할 공적책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요구나 기대, 그리고 좋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결과, 공영방송은 상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정확하고 확인된 뉴스를 제공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또 지역문화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콘텐츠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사회적 기여, 다문화 시대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미디어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콘텐츠 소비가 개인화·파편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히 받아들여집니다.

■ 공익의 가치, KBS가 지키겠습니다

KBS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담긴 여론조사의 결과를 현재 KBS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수신료조정안〉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또 5월 중에는 국민들을 직접 초청하여 숙의 토론방식으로 보다 깊이 있게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방송법에서는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가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미디어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직시하면서 공영방송이 해야 하고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입니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상업화에 밀려나지 않고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는 점을 KBS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KBS 공적 책무 논의 '시민참여단' 200명 선정… 22~23일 숙의 토론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진단하고 새로이 추구해야할 공적 책무 등을 논의할 시민참여단 200명이 지난 10일 구성됐다.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해 각계각층으로 이뤄진 시민참여단은 오는 22일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숙의 토론을 벌인다.

이번 숙의 토론에서는 3가지 주제를 다룬다. 22일에는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 공적 책무에 대한 이해 ▲더 나은 공영방송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23일에는 ▲KBS의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주제로 KBS와 외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분임토의를 이어간다.

숙의 토론 과정은 「KBS 한국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KBS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수신료조정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봉순과 함께 하는 '맛 기행 멋 기행'

제주 바다를 담은, '장어김치'와 '잡탕조림'

KBS 사보는 이번 호부터 전국의 숨겨진 '맛집'과 가볼 만한 '명소'를 사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고봉순과 함께 하는 '맛 기행 멋 기행'〉 코너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기에 국내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여행지 등을 각 지역 사원들이 직접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깊은 맛과 멋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사보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1996년 입사 이후 제주총국에 근무하며 자신만의 '제주 관광지 & 맛집 지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제주 토박이 홍승표 사우의 '숨겨진 맛집'을 공개한다.



※ 사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하는 '맛집'과 '명소'를 기다립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전국의 숨겨진 '맛집'이나 가볼만한 '명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취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 : kbssabo@kbs.co.kr**

제주의 감칠맛 나는 손맛, '동귀포구 식당'

이번에 제주에 가면 뭘 먹을까? 흑돼지… 방어회… 보말칼국수… 자리물회…?

지난번 왔을 때 먹었던 것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제주 바다 냄새가 나면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찐~ 메뉴!!!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제주 토박이들이 숨겨놓고 공개하기를 아끼는 그런 곳을 찾아 떠나 봅시다~

제주 시내에서 차로 20여 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동귀리에 제주 토박이들도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동귀포구 식당'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주 시내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고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들도 없어서 일부러 발품을 팔며 가기 전까지는 오며 가며 들를 일이 없는 곳입니다.

현재 나이 드신 할머니 혼자 식당을 꾸려 가시는데 원래는 구멍가게에서 지인들에게 알음알음 음식을 해주다 점점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식당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칠맛 나는 손맛이 있는 그런 곳이죠.


▲ 장어김치

'장어김치'와 '잡탕조림'… 제철 반찬은 덤이요!

추천 메뉴로는 싱싱한 붕장어에 갓김치 등을 곁들인 '장어김치'라는 칼칼하고 알싸한 매운탕과 그때그때 잡히는 잡어들을 꼬들꼬들 말린 후에 시래기 등을 넣고 조려내는 '잡탕조림'이 일품입니다. 한국음식 중에는 밥도둑이 좀 있는데 위에 소개한 2가지 메뉴도 역시나…! 밑반찬들도 토속적인 한식 차림인데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옵니다.


▲ 잡탕조림

아! 주의할 점도 있네요. 일행 중에 주당이 있다면 '장어김치탕'을 주문하는 건 고민해 봐야 될 듯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쳐 가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동귀포구 식당
◉ 주 소 : 제주시 애월읍 하귀14길 4 / Tel. 064-713-3829
◉ 추천메뉴 : 장어김치, 잡탕조림(잡어조림)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828, 2821
편집인 이경호 **취재** 안현기 기현정 나은정 최재영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